

STARTUP RECIPE
26

VOL. 07 · JULY 2026

ISSUE №26 · HALF-YEAR REPORT

2026 · H1

2026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동향

딥테크가 시장을 다시 열었다.

STARTUP RECIPE INVESTMENT REPORT

PUBLISHED BY
스타트업레시피
STARTUP RECIPE INSIGHT DESK

EDITION
SR / 26 · 001

DEEP TECH · AI SEMICONDUCTOR · LLM · ROBOTICS

₩6.9 DEALS % YOY

H1

TABLE OF CONTENTS

본 리포트 이렇게 읽으세요.

2026년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딥테크 중심의 초대형 라운드 가 이끈 반등이었다. 본 리포트는 시장 전체를 8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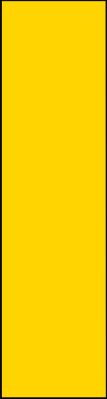
I	전체 서머리 ■ 상반기 6.98조원 · 700건 · 전년比 3.3배	04
II	분야별 투자 추이 제조·소프트웨어·바이오 3대 딥테크 축	06
III	투자 단계별 비율 시드 저변 확장 vs 후기 라운드 실종	08
IV	지역별 분포 수도권 68% · 87.4%가 서울·경기·인천	09
V	주요 투자사 참여·리드 투자자 TOP · 정책금융의 부상	10
VI	투자 유치액 TOP 15 15개 딜이 상반기 공개액의 55% 흡수	12
VII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동향 글로벌 5,100억달러 · AI가 80%	13
VIII	종합 평가와 전망 3대 키워드 · 하반기 관전 포인트	14

PUBLISHER
스타트업레시피
Startup Recipe Insight

REPORT PERIOD
2026 · 01 – 06
H1 · Half-Year Data

COVERAGE
700 Deals · 16 Sectors
KRW 6.98T disclosed

FORMAT
Print Edition · A4
14 pages



전체 서머리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을 넘어섰다.

2026년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은 **6조 9,823억원**, 총 **700건**. 전년 동기 대비 투자액이 **229.4%** 증가하며 시장이 극적으로 반등했다. 운기의 진양은 3월, 정점은 5월이었다.

I · OVERALL SUMMARY

3.3배로 반등한 반년

TOTAL ₩6.98T
DEALS 700

TOTAL DEALS	DISCLOSED AMOUNT	PEAK MONTH	DISCLOSURE RATE
700 건 ▲ 34.9% vs 2025 H1	6.98 조원 ▲ 229.4% vs 2025 H1	5 월 2조 7,342억원 · 상반기 최대	44.0 % 308 / 700 · 절반 이상 비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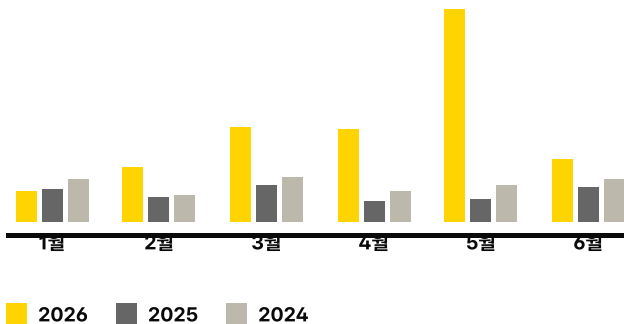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총 **700건**, 공개된 투자 유치액만 **6조 9,82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4.9% 늘고, 투자액은 무려 **229.4% 증가**한 규모다. 직전 회복기였던 2024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투자액은 2.4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반기 총 투자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인 **5조 9,143억원**을 이미 6개월 만에 넘어섰다. 시장의 온기는 3월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살아났으며, 5월 한 달에 만 2조 7,341억원이 몰리며 상반기 최대 월간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

왜 5월인가? 퓨리오사AI 8,000억, 두나무 6,128억, 업스테이지 5,600억 등 AI 반도체와 대형 플랫폼 초대형 라운드가 5월에 집중되며 월간 기록을 다시 썼다.

월별 투자 흐름 (2024-2026 상반기)

단위: 억원 · 6개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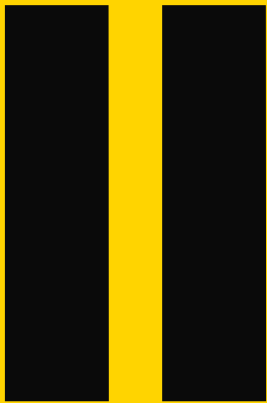


월	2026 건수	2026 투자액	2025 투자액	2024 투자액
1월	125	3,808	4,047	5,565
2월	77	6,980	2,910	3,145
3월	112	11,994	4,699	5,747
4월	116	11,852	2,335	3,703
5월	134	27,342	2,856	4,744
6월	136	7,848	4,350	5,468
합계	700	69,823	21,196	28,372

단위: 건, 억원 · 출처: 스타트업레시피 집계

"상단은 대형화, 하단은 저변 확장 — 그 사이의 '허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STARTUP RECIPE · EDITOR'S NOTE



분야별 투자 추이

**제조·SW·바이오,
세 축이
67.8%를 흡수했다.**

상반기 자금은 이른바 3대 덩테크 축으로 편중됐다. 제조는 86건에 2조 3,679억원. 건당 평균 438억원이라는 이례적 규모다.

II · BY SECTOR

딥테크 3대 축

3 SECTORS · 67.8%
₩4.73T OF ₩6.98T

MANUFACTURING 438 억원 건당 평균 · 시장 최고	SOFTWARE 1.39 조원 128건 · LLM·AI 인프라	BIO & HEALTHCARE 108 건 신약·의료 소재 · ₩9,743억	CONSUMER TECH 134 건 최다 건수, 건당 평균 100억대
--	--	---	--

■ 분야별 상세 지표 · TOP 8

제조		23,679
소프트웨어		13,912
바이오/헬스		9,743
블록체인		6,318
컨슈머테크		3,795
로보틱스		3,391
미디어/콘		2,190
모빌리티		2,008

단위: 억원 · 2026 상반기 공개 투자액 기준

블록체인의 착시 — 10건에 불과했지만 두나무 6,128억원 단일 딜이 섹터 전체 통계를 끌어올렸다. 건당 평균 1,264억원은 대형 이벤트가 만든 왜곡이다.

건수 vs 투자액 · 3 대 딥테크 축

01 · MFG 제조 2.37 조 86건 · 평균 438억	02 · SW 소프트웨어 1.39 조 128건 · 평균 290억	03 · BIO 바이오/헬스 9,743 억 108건 · 평균 148억
---	--	---

#	분야	건수	투자액	평균
1	컨슈머테크	134	3,795	103
2	소프트웨어	128	13,912	290
3	바이오/헬스케어	108	9,743	148
4	제조	86	23,679	439
5	미디어/콘텐츠	65	2,190	115
6	로보틱스	30	3,391	199
7	ESG	27	1,428	130
8	핀테크	23	1,393	155
9	차량/모빌리티	22	2,008	167
10	블록체인	10	6,318	1,264

단위: 건, 억원 · 상위 10개 분야

건수 기준으로는 **컨슈머테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프트웨어 128건, 바이오/헬스케어 108건이 뒤를 이었다. 다만 컨슈머테크는 총 유치액이 3,795억원에 그쳐 건당 평균 100억원대에 머물렀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128건에 1.39조원이 몰려, **LLM·AI 인프라 기업**이 시장의 성장 축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II · SECTOR MOMENTUM

반기 만에 연간을 넘다

SW · ROBOTICS
2025 ANNUAL < 2026 H1

5.8x 제조 분야는 2025년 연간 4,067억원에서 2026년 상반기 2조 3,679억원으로, 반기 만에 5.8배로 폭발적 증가.

■ 2025 연간 vs 2026 상반기

분야	'25 건수	'26 H1 건수	'25 투자액	'26 H1 투자액
소프트웨어	276	128	13,310	13,912
바이오/헬스	245	108	14,878	9,743
컨슈머테크	236	134	5,178	3,795
제조	128	86	4,067	23,679
로보틱스	36	30	2,482	3,391
미디어/콘텐츠	95	65	2,690	2,190

단위: 건, 억원 · 굵은 값 = 반기가 연간을 이미 초과

소프트웨어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투자액을 넘어섰다. 로보틱스 역시 30건·3,391억원으로 반기 만에 2025년 연간을 앞질렀다. 컨슈머테크는 건수 자체는 이미 연간에 근접하고 있다.

월별 x 분야별 투자액 매트릭스 (억원, 상위 8)

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제조	680	1,442	7,443	2,447	9,648	2,019	23,679
SW	348	743	205	4,467	6,472	1,677	13,912
바이오	791	1,256	2,283	1,972	1,448	1,993	9,743
블록체인	130	0	30	0	6,158	0	6,318
컨슈머	309	1,174	505	220	1,271	317	3,795
로보틱스	58	430	618	1,670	500	115	3,391
미디어	165	305	75	129	1,240	276	2,190
모빌리티	513	700	555	0	50	190	2,008

굵은 값 = 월간 스파이크 · 리벨리온(3월)·업스테이지(4·5월)·퓨리오사AI(5월)·두나무(5월)·홀리데이로보틱스(4월)

"휴머노이드가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대형 딜을 남긴 반기."

ROBOTICS · HOLIDAY ROBOTICS ₩1,500억

III · INVESTMENT STAGE

허리 없는 자본시장

SEED 166 · LATE 8
PRE-IPO ₩1.19T

SEED / PRE-SEED	SERIES B / C	PRE-IPO	SERIES D / E
23.7% 166건 · 저변 확장	1.55조 66건 · 중기 성장	1.19조 31건 · 단일 단계 최대 금액	8건 허리 실종 · 회수 경로 협소

단계별 상세 분포

시드 / 프리시드 평균 45억 · 초기	23.7%	166
기타 / 비공개 평균 660억 · 대형딜 다수	27.3%	156
초기 (프리A / A) 평균 132억	20.6%	144
지원금 (팁스 등) 정책 지원 · 금액 비공개	14.0%	98
중기 (B / C) 평균 314억	9.4%	66
인수합병 금액 비공개	4.4%	31
프리IPO 평균 592억 · 리벨리온·소바젠	4.4%	31
후기 (D / E) D 6건 · E 2건	1.1%	8

건수 비중 기준 · 합계 700건

금액 기준 상위 3개 단계

01	02	03
기타/비공개 2.84조 156건 · 평균 660억	중기 B/C 1.55조 66건 · 평균 314억	프리IPO 1.19조 31건 · 평균 592억

왜 '비공개' 카테고리가 커졌나?

상반기 최대 라운드 퓨리오사AI 8,000억 · 두나무 6,128억 · 업스테이지 5,600억이 모두 이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대형 딜일수록 라운드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관행이 확대 중이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별도 집계)

프로그램	건수	성격
팁스 (TIPS)	76	초기 스타트업 R&D 지원
딥테크 팁스	12	딥테크 특화 지원
합계	88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순수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나, 초기 기업 자금 조달 통로로 영향력 큼

"프리IPO 31건이 1.19조원, 후기 라운드는 단 8건.
회수 경로가 열려야 허리가 채워진다."

VC INSIGHT · LATE-STAGE GAP

IV · REGION

수도권 87.4%의 벽

SEOUL · GYEONGGI · INCHEON
476 OF 700 DEALS

SEOUL 328 건 46.9% · ₩3.71T	GYEONGGI 121 건 17.3% · ₩2.32T · 판교·수원 벨트	CAPITAL AREA 87.4% 공개 투자액 · 수도권 편중	NON-METRO 9.6% 190건 · 격차 지속
--	--	--	---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476건		₩60,999억
비수도권 190건		₩6,682억
해외 / 미상 34건		₩2,142억

투자액 비중 (%) 기준 · 상반기 공개 6.98조원

지역별 스타트업 투자 (전 18개 지역)

01 서울 328 ₩37,062억	02 경기 121 ₩23,227억	03 부산 34 ₩938억	04 대전 33 ₩1,438억
05 해외 31 ₩2,142억	06 인천 27 ₩711억	07 대구 15 ₩391억	08 제주 13 ₩41억
09 경북 12 ₩955억	10 경남 12 ₩188억	11 전북 11 ₩1,000억	12 울산 11 ₩407억
13 강원 11 ₩106억	14 전남 10 ₩315억	15 광주 9 ₩298억	16 충북 7 ₩477억
17 충남 7 ₩38억	18 세종 5 ₩90억		

서울은 마포·강남·성수 3대 벨트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클러스터가 견고하다. 두나무(마포)·업스테이지(강남)·티카로스(성수) 등 대형 딜 기업이 모두 이 세 권역에 집중돼 있다. 경기는 성남·판교와 수원·용인 반도체 벨트가 양대 축을 이뤘고, 리벨리온·엑시나의 대형 라운드가 유치액을 2.32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전이 카이스트 기반 바이오·딥테크 성과로 강세를 보였다. 소바젠(프리IPO 1,230억), 세닉스바이오테크(시리즈B 1,250억)가 대표적이다. 전북·경북 등 일부 지역은 소재·ESG 스타트업의 대형 라운드로 순위권에 진입했으나, 전남·충남·세종 등은 여전히 상반기 유치액 100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V · KEY INVESTORS

대형 VC · AC · 정책금융

TOP PARTICIPANT 19 DEALS
TOP LEAD 15 DEALS

MOST ACTIVE VC 한국투자파트너스 19건 · 참여 1위	TOP LEAD (AC) 엔틀러코리아 15건 · 리드 1위	POLICY ANCHOR 국민성장펀드 리벨리온·퓨리오사AI 주도	CORPORATE CVC 삼성 계열 3사 두나무 6,128억 공동 참여
---	--	---	---

참여 횟수 기준 TOP 20 · 팁스 제외

01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형 VC · 콘스탄트 외	19	02 KB인베스트먼트 금융계 VC · SW·바이오	17
03 엔틀러코리아 엑셀러레이터 · 시드 다수	16	04 씨엔티테크 엑셀러레이터 · 초기	15
05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 · 리벨리온·업스테이지	14	05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엑셀러레이터 · 딥테크 시드	14
07 더인벤션랩 엑셀러레이터 · 콘슈머	13	08 하나벤처스 금융계 VC	12
08 IBK기업은행 정책금융 · 반도체·소재	12	10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대형 VC · 게임·콘텐츠	11
10 미래에셋벤처투자 대형 VC · 리벨리온·소바젠	11	12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대형 VC · 엑시나·홀리데이	10
12 스틱벤처스 대형 VC · 보스반도체 등	10	12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형 VC · 모빌리티 등	10
12 퓨처플레이 엑셀러레이터 · 딥테크	10	12 서울대기술지주 대학 지주 · 스피노프	10
12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 · 초기	10	18 크릿벤처스 VC · 초기	9
18 디캡프 CVC · 콘스탄트 등	9	18 프리미어파트너스 대형 VC · 업스테이지	9

리드 투자자 TOP 10 · 첫 번째 참여

#	투자사	리드	성격
1	엔틀러코리아	15	엑셀러레이터
2	씨엔티테크	13	엑셀러레이터
3	더인벤션랩	12	엑셀러레이터
4	블루포인트파트너스	10	엑셀러레이터
5	한국투자파트너스	8	대형 VC
5	서울대기술지주	8	대학 지주
7	산업은행	7	정책금융
8	더벤처스	6	엑셀러레이터
8	스톤브릿지벤처스	6	대형 VC
8	엠와이소셜컴퍼니	6	임팩트 VC

상위 리드 대부분이 엑셀러레이터 · 시드 저변 견인

"국민성장펀드·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이 대형 딥테크
딜의 앵커로 자리 잡았다."

POLICY CAPITAL · DEEP TECH ANCHOR

대기업 CVC의 이동 — 삼성 계열이 두나무, SK네트웍스가 업스테이지, 크래프톤·텐센트뮤직이 더블랙레이블, 현대차·기아가 업스테이지 전략 투자에 참여했다.

V · POLICY & CVC LANDSCAPE

정책자금 · 대기업 · 딥테크 하우스

REBELLIONS ₩640B
UPSTAGE ₩740B (H1
TOTAL)

₩3,000억

리벨리온 프리IPO 6,400억원 중 국민성장펀드 2,500억·산업은행 500억 등 정책자금 3,000억원이 앵커. 민간 합동 딥테크 지원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 정책금융이 앵커한 대형 딜

03월 리벨리온 · 프리IPO 6,400 억 국민성장펀드·산업은행·미래에셋	05월 퓨리오사AI · 기타 8,000 억 국민성장펀드 주도	05월 업스테이지 · 기타 5,600 억 첨단전략산업기금·산업은행
---	---	--

딥테크 특화 하우스의 성수기

하우스	주도 딜	규모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엑시나 시리즈B	1,500억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홀리데이로보틱스 시리즈A	1,500억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보스반도체 시리즈A	870억
스톤브릿지벤처스	홀리데이로보틱스	공동 리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모빌린트	공동 리드
프랙시스캐피탈	모빌린트 시리즈C	700억
미래에셋벤처투자	리벨리온·소바젠	공동 참여
프리미어파트너스	업스테이지	공동 참여

에이티넘이 상반기 딥테크 3연타를 기록

대기업 CVC의 전략 투자

두나무 ₩6,128억 (5월)	
삼성증권	공동 참여
삼성카드	공동 참여
삼성SDS	공동 참여
업스테이지 ₩5,600억 (5월)	
SK네트웍스	전략 참여
현대차·기아	전략 참여
첨단전략산업기금	앵커
더블랙레이블 ₩1,000억 (5월)	
크래프톤	공동 리드
텐센트뮤직	공동 리드

"완성차와 게임사가 AI·엔터에 자본을 엮는다 — 파트너십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했다."

CORPORATE CAPITAL · NEW ALLIANCE

VI · TOP 15 DEALS

15개 딜이 절반을 삼켰다

TOTAL ₩3.85T
55% OF H1 DISCLOSED

TOP 15 TOTAL	AI · SEMI · DATA	AI CHIP DUO	UPSTAGE H1
3.85 조원 상반기 공개액의 55%	10 /15 15개 중 10곳이 관련	1.44 조원 퓨리오사AI + 리벨리온	7,400 억원 LLM 스타트업 국내 최고

01	퓨리오사AI Furiosa AI · 5월 AI 반도체 · 제조	기타(비공개) 국민성장펀드 주도	8,000 억원
02	리벨리온 Rebellions · 3월 AI 반도체 · 제조	프리IPO 국민성장펀드·산업은행·미래에셋	6,400 억원
03	두나무 Dunamu · 5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업비트) · 블록체인	기타(비공개) 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SDS	6,128 억원
04	업스테이지 Upstage · 5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 소프트웨어	기타(비공개) 첨단전략산업기금·산업은행	5,600 억원
05	업스테이지 Upstage · 4월 LLM · 맞춤형 AI 솔루션	시리즈C 사제파트너스·프리미어	1,800 억원
06	엑시나 Excina · 4월 AI 반도체 · 제조	시리즈B 에이티넘·IMM·LB	1,500 억원
07	홀리데이로보틱스 Holiday Robotics · 4월 휴머노이드 로봇 · 로보틱스	시리즈A IMM·에이티넘·스톤브릿지	1,500 억원
08	스마트스코어 Smart Score · 2월 골프 플랫폼 · 컨슈머테크	기타(비공개) 어필캐피탈	1,100 억원
09	포인투테크놀로지 Point2 Technology · 4월 데이터 전송 기술 · 소프트웨어	시리즈B 엔벤처스·매버릭·UMC	1,000 억원
10	더블랙레이블 The Black Label · 5월 종합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콘텐츠	시리즈B 크래프톤·텐센트뮤직·새한	1,000 억원
11	디노티시아 Denotia · 4월 장기지역 AI 통합 솔루션 · 소프트웨어	시리즈A 키움·스타팅라인	900 억원
12	보스반도체 BOS Semiconductor · 2월 AI 시스템반도체 · 제조	시리즈A 에이티넘·스틱벤처스	870 억원
13	천보비엘에스 Cheonbo BLS · 6월 2차전지 소재 · 제조	시리즈A 미래에셋·캠코·성장금융	800 억원
14	모빌린트 Mobilint · 4월 AI 반도체 · 제조	시리즈C 프랙시스·포스코기술투자	700 억원
15	엑스포넨트 Exponent · 6월 AI 프랜차이즈 금융 플랫폼 · 핀테크	시리즈A 차일리스·에라·인어그레이션·K8	609 억원
Σ	TOP 15 합계 Aggregate of Top 15 deals	상반기 공개 투자액의 55% 흡수	38,547 억원

VII · GLOBAL TRENDS

글로벌 슈퍼사이클

GLOBAL H1 · \$510B
AI = 80% OF Q1

GLOBAL H1	AI (Q1)	NORTH AMERICA	DEAL COUNT (Q2)
\$510_B 사상 최고 · 반기 > 2025 연간	\$242_B 전체의 80%	\$392_B 전 세계의 약 77%	10y_{Low} 신규 유니콘 6분기 최저

글로벌 초대형 라운드 · 2026 H1

OpenAI Frontier AI · US · Q1		\$122B
Anthropic Q1+Q2 합산		\$95B
SpaceX (IPO) Q2 · \$1.77T val.		\$75B
xAI US · Q1		\$20B
Waymo Autonomous · Q1		\$16B
Prometheus AI Infra · Q2		\$12B
Anduril Defense · Q2		\$5B

기업별 상반기 조달액 · 굵은 노랑 = OPENAI·ANTHROPIC 대비 스케일

"오픈AI+앤트로픽 두 회사만 \$217B — 상반기 글로벌 총액의 43%."**WINNER-TAKES-ALL CAPITAL**

지역별 · 2026 Q1

지역	투자액	비중
미국	\$250B	83.0%
중국	\$16.1B	5.3%
영국	\$7.4B	2.5%
아시아 (Q2 총합)	\$50.8B	-
인도	미공개	고른 성장

단위: USD · 크런치베이스·피치북·CB인사이드 종합

국내-글로벌 접점

① AI·반도체 편중 — 국내 1분기 45.1%가 AI·반도체 (전년 23.4%의 2배).**② 대형화 · 건수 정체** — 글로벌은 10년래 최저 건수, 국내는 후기 실증·시드 확장의 이중 구조.**③ 정책·대기업 자본** — 국내는 국민성장펀드가, 미국은 대기업·인프라 자본이 시장을 떠받쳤다.국내 최대 딜 퓨리오사AI \$580M도 오픈AI \$122B의 **1% 미만**. 딥테크에 대한 국가 단위 자본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 VIII · OUTLOOK 2026 H2

세 개의 키워드, 하나의 관전 포인트.

2026년 상반기는 딥테크 집중 · 정책자금 확대 · 양극화 심화로 요약된다.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 — 이 반등이 실질적 자본 회수와 재투자 순환으로 이어질 것인가.

KEYWORD 01

딥테크 집중

AI 반도체·LLM·로보틱스·바이오 등 자본집약적 딥테크가 시장 성장을 견인. 상위 15개 딜 중 10곳이 AI·반도체·데이터 인프라 관련 기업.

KEYWORD 02

정책자금 확대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신설 정책자금이 대형 딜의 앵커. 리벨리온·퓨리오사·업스테이지 라운드에 정책자금 대거 투입.

KEYWORD 03

양극화 심화

상위 15개 딜이 전체의 55% 흡수. 시드·프리티드는 건수 증가에도 금액 정체. '상단 대형화 · 하단 저변 · 허리 실종'의 삼분화.

승자독식의 시대. 글로벌 시장이 오픈AI·엔트로픽·스페이스X 중심의 초대형 이벤트로 요약되는 반면, 국내는 AI 반도체 두 강자(퓨리오사·리벨리온)와 업스테이지·두나무 등 산업 대표 플랫폼이 시장의 축을 이룬다. AI 시대의 자본 배분 원리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형 딥테크 유니콘 육성 전략**이 하반기 이후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가 시장의 다음 화두다.

회수의 시간. VC 업계는 M&A 시장 부재와 회수 경로의 제약이 후기 라운드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장 예비 기업들의 프리IPO와 **코스닥 상장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반기 반등이 실질적 순환 구조로 이어질지가 판가름 난다.